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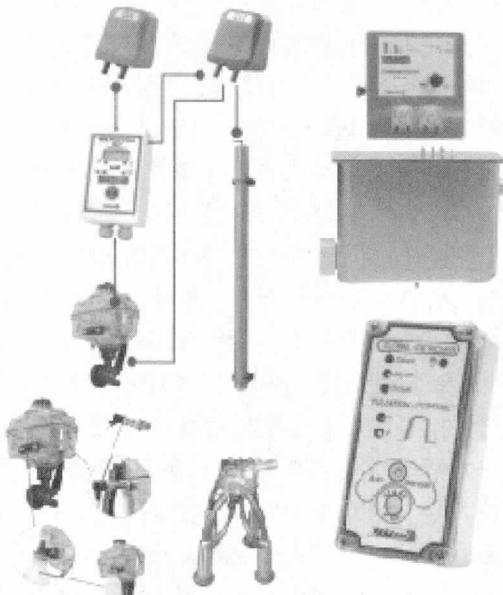
오토락

신제품 설명회 개최

오토락(대표 김동규)은 지난 3월 27일 본사에서 전국 낙농기자재 대리점 사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신제품 설명회는 자사 대리점 사장님만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낙농기자재 대리점 사장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낙농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신제품은 ‘유량계’, ‘자동탈락기’, ‘세척기’ 3가지로 유량계는 맥동비율 변경이 가능한 전자 맥동기로 총유량을 포함해 100g마다 유량



을 표시해주며, 셋팅할 수 있는 착유프로그램과 화면에서 착유상태를 표시해 준다. 또한 적절한 빛으로 착유주기가 끝남을 알려주고, 착유시간을 표시해 준다.

자동탈락기는 맥동비율 횟수변경이 가능하며, 2 가지 착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LED에 의해 컨트롤된다. 또한 전자맥동, Stimo-맥동으로 콘트롤할 수 있으며, 유량센서 등을 갖추고 있다.

세척기는 전자동 세척기 2가지 모델이 있다. 가열장치를 갖춘 자동 세제 디스펜서가 장착된 열세척기와 가열장치가 없는 세척기로 분류되며, 모두 세척온도와 세척시간이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자동재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CJFeed

서부사업부 비전 선포식 개최

CJ제일제당 사료BU(대표이사 김진수) 서부사업부는 지난 3월 20일 군산공장 준공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비전 선포를 통한 구성원들의 단결과 힘찬 도약을 결의하고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호 서부사업부장은 “Real Champion of Feed Business in SeoBu Division”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4대 세부 미션을 공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매출/수익 극대화 위한 최강의 영업조직 전문화, 둘째,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한 ID Feed Biz 확대, 셋째, 지속적 성과 창출로 비용 경쟁력 확보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 강화로 최고의 기술력 확보다.

이번 비전과 미션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수익과 니즈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자인됐으며 대대적인 조직재편과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변화 모색을 통해 ‘고객을 위한 초일류 사료회사’가 되고자 하는 CJ Feed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날 CJFeed의 관계자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최근 어려운 축산환경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앞으로도 CJ Feed 가 국내 토종사료 국가대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제당

BOCM PAULS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프라임 스타터” 개발

대한제당은 송아지의 수송 스트레스의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을 위한 송아지의 면역력 및 섭취량을 증대하는 신제품 ‘프라임 스타터’를 개발 출시했다.

‘프라임 스타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동 및 사료 변화에 따른 반추위 환경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섭취량을 높이기 위해 제품 내 섬유소와 전분 관리를 하여 사료 변화에 따른 반추위 환경의 스트레스 최소화 및 반추위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 또

한 반추 미생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바이오셀SC첨가하여 반추위 환경 및 반추 미생물의 활성을 개선한다. 특히, 식물 추출물C 중에 면역력 증대와 섭취량을 증대하는 식물 추출물 복합제를 사용하여 사료 섭취량 증대 및 송아지의 면역력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설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FOS(Flucto-Oligosaccharide)을 첨가했다. FOS는 장내의 유익균의(lactobacillus, bifidobacteria, bacteroides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 장내의 유익균의 성장을 증대시켜 장내에서 유익균이 우점하여 유해균의 증식공간이 감소, 유해균의 증식이 억제되며, 또한 유익균이 분비하는 유기산에 의하여 장내의 pH가 떨어져 더욱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 시킨다. 따라서, 대장균, 살모세균 등 유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설사를 예방한다.

대한제당 한 관계자는 “가축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비육우의 어린 송아지는 이동에 의한 수송 스트레스와 전에 살았던 농장과 새로 입식 된 농장의 사육환경 및 사료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 생리적 변화가 유발되어 영양소 균형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결핍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은 스트레스에 대한 송아지의 방어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미 어떤 질병에 감염된 상태로 수송되는 송아지는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은 송아지는 소화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감소되어 섭취량, 중체 저하 및 설사 등 질병이 발생하여, 추후 가축의 생산성 저하 및 질병에 의한 폐사로 농장의 비용이 증가되고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구입해 온 송아지의 수송 스트레스의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을 위하여 송아지의 면

역력 및 섭취량을 증대하는 신제품인 '프라임 스타터'를 개발, 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조물산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 기술지원 센터 설치 운영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
스템의 확산과
더불어 엄격한
검증으로 공인되

는 Lely 로봇만을 위한 서비스 엔지니어가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위해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의 기술지원센터를 전국(경기북부,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 설치 운영한다.

Lely사의 송아지 포유기 Calm과 송아지 조끼

동조물산은 Lely사의 송아지 포유기 캄(Calm)과 송아지 조끼를 수입 공급한다.

캄은 송아지 자동 포유기의 가장 큰 장점인 하루 종일 일정한 상태의 우유를 적은 양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먹일 수 있다는 것. 캄은 개체별 데이터와 연령별 포유 프로그램을 통해 매 포유 시마다 정확한 농도와 분량을 준비하여 송아지에게 포유한다. 내장된 보일러와 온도 센서로 우유를 항상 어미소의 체온과 동일한 온도(39°C)로 유지하고, 정확한 농도 분량과 일정한 온도 유지로 송아지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한다. 또한 1일 3회의 세척으로 포유기의 위생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목장주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개체별 정보의 입력,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캄을 이용하여 목장에서 적은 노동으로 20~25마리의 송아지에게 포유할 수 있으며, 피딩 스테이션을 추가 연결할 경우, 최대 50마리까지 포유가 가능하다.

또한, Lely 송아지 보온 조끼는 체온을 유지해 줌으로 에너지가 오로지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송아지를 고농력으로 성장시켜주는 첫번째 필수 단계이다.

축산과학원(충남 천안)서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 시연회 개최

축산과학원은 지난 3월 13일 11시부터 동조물산(주)에서 공급한 네덜란드 Lely사의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의 시연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축산과학원의 Astronaut A3의 설치배경, 현황, 기대효과 등의 '로봇 착유 시설' 경과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산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로봇 착유시스템의 첨단적 기능을 통하여 국내 낙농업의 발전과 새로운 연구개발과제 창출과 가축복지 향상으로 생산성 증가 및 고품질 우유 생산 연구기반 조성 등의 목적으로 로봇 착유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

